



윤석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추락했던 윤석열 지지율이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최근 중소기업인 대상 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77퍼센트가 나온 걸 두고, 윤석열은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새로 조성하려는 계급 기반을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 평가가 50퍼센트를 넘는다. 중도에서도 전체 평균보다 긍정 평가가 낮고 부정 평가가 높다.

본질적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등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불만에서 비롯한다.

5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취임 1주년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집권 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한 대답(35.6퍼센트)이 좋아졌다는 대답(8.6퍼센트)의 4배였다.

윤석열은 이런 불만에 대처하려고 법·질서 명분으로 서민·노동자 통제를 강화하고 노조, 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의 지지율 회복은 단호한 우파 지도자 행세를 해 보수층을 결집시킨 덕분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가 그의 지지율에 별 타격이 되지 않은 것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투기 건으로 민주당의 한계와 위선이 드러난 탓이 크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입법안들이 서민층 전반이 겪는 핵심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못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피해 당사자들에게 규탄 대상이 되고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려다가 누더기 법이 된 탓이다.

윤석열의 책임을 흐릴 뿐인 여야 협치



부재 얘기를 하지 말라. 여야 협치를 안 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부족해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에선 오히려 재계의 반대가 심한 노란 봉투법은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말이 나온다.

노조 때리기로 윤석열 지지율 상승?

윤석열의 지지율 회복이 반노조(노조 혐오) 정서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최근 정부가 건설노조 파업 집회를 거세게 비난했지만, 그 직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의 노조 대응 때문에 윤석열을 긍정 평가한다는 답변자는 전체 중 1퍼센트에 불과했다.

기업주와 우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와 신념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에 당연히 환호한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노조 혐오 정서가 퍼져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대중의 노조 혐오 정서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 투쟁을 노조 내부로부터 자제시키는 보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윤석열 심판 야권연대’ 결성을 위해 민주당이 불편할 만한 수준으로 투쟁이 전개되지 않

게끔 하려는 노동운동 내 온건파들의 계산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진보’ 포퓰리즘 전략은 윤석열에게 반격의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지속되는 객관적 문제들

사실 윤석열의 지지율 추이보다는 그의 정부가 처한 모순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 회복은 미국의 대북 핵우산 강화 등을 얻어낸 것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로 고조된 안보 위기감 때문에 미국의 안보 보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적지 않은 것이다. 지금 으로서는 평화를 위한 다른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다.

그래서 대일 굴욕 외교 논란, 대미 퍼주기 외교 논란 속에서 잠시 흔들렸던 보수층이 확고한 친미 안보 노선에 안도하며 다시 결집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군국주의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하는 윤석열의 노선이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위기와 모순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오히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문제, 미·일의 자국 우선주의 문제 등 한국이 직면한 모순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와 서민 생계 위기에서 회복될 조짐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의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윤석열 지지율의 출렁거림에 일희일비하거나 총선을 기다리며 투쟁을 자제할 게 아니다. 생계 위기, 친서방(일본 포함), 각종 탄압 문제 등을 서로 연결시켜 저항을 전면화하는 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

<노동자 연대> 정기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좌파적 포퓰리즘, 유럽 좌파의 위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대구 시장 홍준표가 대구 이슬람 사원 옹호 발언을 한 것이 화제다. 홍준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리가 같은 종교라며,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함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은 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2020년 9월부터 기존 예배용 건물을 확대 공사하며 시작됐다.

무슬림들은 마땅히 신앙 생활을 할 자유가 있고, 이슬람 사원 건설도 종교적 자유의 일부다.

하지만 지역 주민 일부가 이슬람 사원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애초 건축 허가를 내줬던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자신감을 얻은 사원 건설 반대 측은 무슬림들을 향해 차별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극우 개신교 세력도 여기에 가세했다.

이렇게 일시 중단된 공사는 2022년 9월 대법원의 판결로 북구청의 결정이 최종 뒤집히며 재개됐고, 이슬람 사원은 이르면 이번 달 내 완공될 것이다.

홍준표 같은 우파 정치인이 이슬람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그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무슬림 배척에 앞장서 온 전광훈은 2017년 대선 때 홍준표를 공개 지지했다.

그런데 한국의 지배자들은 서구 지배자들만큼 무슬림 차별을 핵심 지배 전략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또, 한국의 지배자들은 중동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하기에, 국가 기구가 나서서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다.

홍준표 자신도 대구시 차원에서 무슬림 국가들의 기업들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려 해 왔다. 그래서 “글로벌 도시 대



구” 운운하며, 대구에 이슬람 사원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홍준표가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 그 때문에 홍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광훈 세력과 선을 그으라고 요구하며 당 대표 김기현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친전광훈 세력을 비롯한 극우 개신교 세력은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진영에 개입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에 반대하는 주민측 소송을 전광훈 측 변호사가 맡고 있다.

전광훈과 같은 극우 개신교 세력은 반공주의, 반동성애, 반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세력을 결집시켜 왔다. 홍준표와 김기현 같은 주류 우파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에게 구애하고 협력해 왔다.

주류 우파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는 그

동안 극우 개신교 세력이 거리에서 세력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됐다.

무슬림 방어 연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지난 5월 20일, 대구 도심에서 1500여 명 규모로 이슬람 사원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슬람 혐오로 결집한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 지지율이 높은 대구 지역 등에서 지지층 확대를 노린 속셈일 것이다.

집회 연단에 오른 개신교계 보수 인사들은 가짜뉴스를 쏟아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건설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범죄와 테러가 만연한 “무슬림들의 치외법권”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슬람 사원 측 무슬림들은 지난 7년 동안 대현동에서 신앙 활동을 해

왔지만 주민들과 아무 마찰도 없었다고 말한다. 무슬림 인구 증가가 범죄와 테러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무슬림 배척에 반대하며 대구 지역의 학생·노동·인권단체들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도 개최해 왔다. 경북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지난 5월 한 달 간 매주 이슬람 혐오에 반대하는 학내 행진을 벌였다.

극우 기독교 세력의 이슬람 혐오와 무슬림 배척은 국내 이주노동자의 적잖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축시키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간질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은 대구 이슬람 사원이 완공된 이후로도 계속 사원을 문제 삼으며 공격할 수 있다.

이에 맞서 평범한 한국인들이 무슬림 이주민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6월 7일(수) 오후 8시
발제 임준형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60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